

대전교육청,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8교 추진

특성화고 자발적인 혁신을 위한 큰걸음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특성화고 8교를 선정해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소통·협력에 신입생 중원, 학업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등 학교별 자율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 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교육부와 교육

청이 함께 지원하는 1년 단위 계속 사업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월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2월 초 8개교를 선발했으며, 이들 학교에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학교 수는 지난해 5교에서 3교가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관리와 학교역량

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선정학교는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각각 ▲가고 싶은 학교(대전공업고, 대전전자디자인고) ▲머물고 싶은 학교(대전국제통상고, 대전대성여자고) ▲실력을 키우는 학교(계룡디지털고, 대전여자상업고) ▲꿈을 이루는 학교(유성생명과학고, 충남기계공업고)이다. /정민준 기자

대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에 대해 사업기간동안 학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운영을 통해 특성화고가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정흥재 과학직업정보과장은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고 혁신 모델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서산교육지원청 4차 산업혁명교육 중점교육지원청 선정

인공지능(AI)과 친해지자! 미래를 열자! 함께 성장하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4차 산업혁명교육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산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4차 산업혁명교육을 선도할 5개의 교육지원청을 공모했으며, 공모를 신청한 13개 교육지원청 중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2021년도 1년간 예산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4차 산업혁명교육의 비전은 'One헬스와 동고동락(同考同樂)'으로 펼쳐지는 미래 교육'으로 One헬스는 기계 중심 AI교육 너머 사람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확장형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동고동락(同考同樂)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즐기면서 미래를 배우는 교육을 의미하며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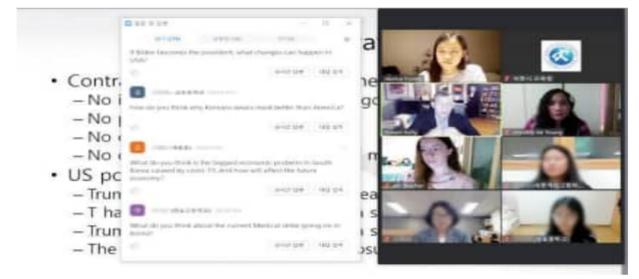
(AI)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인간 다움과 미래다움이 조화된 AI교육을 추구한다. 컴퓨터 사고력 강화를 통한 스마트

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생태계 조성, 교과와 융합하는 AI교육 강화, 인간과 공존하는 AI교육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유관기관 연계 AI·SW교육 환경 조성 지원, AI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교과와 융합하는 AI 알고리즘 교육 자료 개발·보급, AI 윤리교육 및 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선희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교육 중점교육지원청 선정으로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위한 지역적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체험중심 학습을 제공하고, 인간의 삶과 환경의 문제해결을 위해 AI영역을 확장해 상상하는 창의·융합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 서산교육지원청은 4차 산업혁명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만족하기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 /김현기 기자

세종시 학생들, 온라인으로 해외친구들과 소통

'모두가 다르지만 동등한 청소년 문화' 등 주제 공감·소통 자리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겨울방학 온라인 국제 문화교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방학 중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국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문화교류캠프는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4명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오후 8시부터 90분간 총 4회로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한

청소년 문화 ▲국제문화 다양성 이해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문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제로 특강, 주제토론, 브이로그 제작 및 공유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후의 교육협력과장은 "앞으로도 웹세미나와 세종국제청소년포럼 등 학생의 미래역량과 세계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마련해 청소년의 국제 교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환경사랑 초록자전거안전교육 인증제 실시

생태환경·안전 융합교육에 앞장선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희)은 2021년 아산교육지원청 중점사업 '늘푸른 아산21'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환경사랑 초록자전거안전교육 인증제'를 실시한다. 환경사랑 초록자전거안전교육 인증제는 환경·안전·건강을 핵심요소로 설정해 구안된 사업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환경교육을 접목한 융합교육으로 추진된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과 예방중심 교통안전교육 4차시 분량의 융합 프로그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관내 학교에 안내하고 수업 도움자료가 배포된다.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사운영에 반영해 운영 될 예정이다.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은 이문 2시간, 실기 2시간 총 4시간의 운영 예시와 인증절차가 소개되어 있다. 저

탄소 사회로 가는 첫걸음 탄소발자국 줄이기, 자전거 운전자 교통법규 및 교통표지판, 자전거의 구조와 관리, 자전거 수신호 등을 교육내용으로 소개해 환경보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수업 도움자료로써 학생 개인용 수업 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사랑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소중한 환경을 지킬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를 구현하고 예방적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거라 한다. 이문희 교육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안전 융합교육은 지속 가능한 생태적 환경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연과 공존화하는 늘푸른 아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찬 기자

당진교육지원청

합덕공립형지역아동센터에 격려품(도서)전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박해숙)은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합덕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격려품(도서)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소중한 나눈 시간을 가졌다. 합덕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돌봄 공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려인 동포가정 밀집지역인 합덕지역에 지난 2월 6일 개소했다. 합덕지역(합도초, 신촌초)은 고려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늦은 귀가로, 방과 후 자녀 돌봄이 절실한 구도인 지역이다. 이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초록별교실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 돌봄을 운영하고, 당진교육지원청이 방과후 프로그램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당진시의 지원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개소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됐다. 이에 당진교육지원청은 지역아동센터개소의 축하와 학생들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오늘 도서를 전달하였다. 박해숙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의 방학으로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현병진 기자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상반기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원장 최한규)은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으로 18종의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강좌는 생애 초기 독서프로그램인 '북스타트' 3종과 ▲아동·학생 대상 '즐거움 영어동화' 등 9종, 성인 대상 '그림책과 동화연구' 등 6종이다. 모든 강좌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특히 북스타트는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하고 4회 이상 출석한 팀에게는 책꾸러미도 증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충청남도 거주자에 한해 평생교육정보시스템(www.cnall.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 신청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문헌정보부(☎041-904-6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세종장영실고-(주)원탑스튜디오 업무 협약

세종시 영상서비스 전문인재 양성



세종장영실고등학교(교장 최재화, 이하 세종장영실고)는 지난 17일 세종장영실고에서 (주)원탑스튜디오와 세종시 영상서비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종장영실고 IT콘텐츠과 학생들의 우선 채용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영상 기자재 공동 활용과 콘텐츠 정보교류 등이다. /정민준 기자

정혜금 (주)원탑스튜디오 대표는 "영상 콘텐츠 분야는 수도권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어 비 수도권에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협약으로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양성에도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장영실고는 지난해 3월에 개교한 학교로서 '내 삶의 행복한 직업교육(My life, My job)'이라는 교육 이념을 갖고 직업계고 학제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창의융합수업과 다양한 자격취득 교육, 직업의식 교육 및 사제준비교육 등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금양교육도서관,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운영

금양교육도서관(관장 노선미)은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서비스란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금양읍 내에 있는 서점에서 새 책으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양교육도서관은 교육문화복합공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어 컨테이너에 소장된 1,800여권의 도서만 대출이 가능해 지역민들이 원하는 도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신간을 대출해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도서는 신청 후 3-5일 만에 서

점에서 새 책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반납은 대출해간 서점으로 반납하면 된다. 매월 1인 2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주간 대출이 가능하다. 읍성군에 거주하는 교육도서관에 가입되어있는 회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대출 가능 문자를 받아 서점에서 문자와 회원증을 보여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노선미 관장은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중인 도서관의 이용이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신간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 서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섭 기자

옥천행복교육지구, 학교-마을활동가 워크숍 실시

옥천행복교육지구(공동위원장 김재중, 김일환 교육장)가 지난 16일 충북산과교를 시작으로 옥천 관내 중·고교 희망학교 대상 학교-마을활동가 워크숍을 실시한다. 워크숍은 직업계고 활성화, 고교교

육과정 다양화,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학교 교원과 연계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는 직업계고 특성에 따라 지역 향토기업 대표, 화

사나 가게를 창업한 귀농청년 등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젊은 마을활동가를 연계한다. 중학교는 옥천전문문화체험관, 미디어 유튜브 제작, 청소년 자치활동 등 중장기적인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관내 기관 담당자가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설명하게 된다. /이기국 기자

옥천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는 노한나 장학사는 "2021년 옥천행복교육지구는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취업을 위한 연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문계고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기국 기자

대전교육청, 교육재정 4,346억원 조기집행 추진

교육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7일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를 갖고 조기집행 대상사업 7,557억 원 중 4,346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집행점검단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재정확대 방안은 도서, 사무용품, 정보화기기 등 각종 물품은 1/4분기 구매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비 예산은 조 기발주, 선급·기성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준 기자

향후, 점검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월별 조기집행 목표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단장을 맡고있는 대전교육청 홍민식 부교육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재정의 신속한 투입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법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비 예산은 조 기발주, 선급·기성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준 기자